서울주보

제2562호
2025년 6월 15일(다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삼위일체(주님의 피에타) 부분
작자 미상
1435, 나무에 템페라, 159x155.2cm
바르샤바 국립미술관, 폴란드 바르샤바

입 당 송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 잠언 8,22-31

화 답 송 | 시편 8,4-5.6-7.8-9(◎ 2ㄱㄴ)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2독서 | 로마 5,1-5

복음환호송 |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 음 | 요한 16,12-15

영성체송 |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s://cc.catholic.or.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 tv 297번 | U+ tv 274번

생명의 말씀

하느님과 관계의 거리를 좁히기

김민 요한 신부 |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요한복음서는 13-17장에 걸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간절한 작별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복음은,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진리의 영'이 제자들을 찾아와 예수님의 지난 말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해 줄 것이라는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과 나누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다시 한번 천명됩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요한 16,15) 오늘 '진리의 영'과 하느님과 맺고 있는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진리의 영'에서 진리는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ἀλήθεια)"라는 단어입니다. 재미있게도 그리스어 알레테이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거짓의 반대, 그렇기에 '오로지 참인 것'이지만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는 '숨겨진 것이 밝혀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과연 본질의 세상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 속의 예수님 외에 혹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러한 숨겨진 비밀이 알레테이아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미숙해서 알지 못하는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메시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숙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라는 말에 실마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수도회에 들어오기 전 저는 그다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저에게 연구의 대상이었지 믿음과 삶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회에 들어오고 기도 생활을 해 나가면서 저 멀리 오브제처럼 떨어져 관조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제 마음을 움직이며 제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회에서는 이것을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현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저의 영적인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는 과정, 즉 알레테이아는 저를 조금씩 문자 그대로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느끼고 제가 꽤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상담 선생님은 이를 내적 화해라고 부르더군요. 이 표현도 마음에 듭니다. 이제는 좀 더 이 고별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조금 더 견디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하여 하느님과 예수님, 진리의 영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 가득하게 바라보시는지 느끼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청합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성화 해설

이 그림은 본래 세 폭으로 된 제단화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 날개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Pietas Domini(주님의 피에타)' 또는 'Compassio Patris(함께 고통받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도상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홀로 수난받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령께서도 함께하심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인류와 화해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진 성자 그리스도의 몸을 들어 보여주십니다. 삼위일체는 멈추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의 고통마저도 사랑으로 감내하며 일치하는 신비입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말씀의 이삭

6월 말씀의 이삭은 우리 교구 민족화해위원회를 통해
북한 관련 사목에 함께하는 다양한 필자분들께서
(연구자, 선교사, 북한이탈주민, 청년 활동가 및 참가자) 채워 주십니다.

하느님은 나의 든든한 버팀목

강성미(가명) 프란체스카 | 민족화해위원회 북향민 지원 담당

여러분은 북한을 벗어나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또 '북한이탈주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북향민으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북향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에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어릴 때 접한 중국에 대한 궁금증으로, 중국 여행을 가는 것처럼 하여 브로커를 따라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가을, 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두려움에 떨며 대한민국 땅을 밟은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교육을 받는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종교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없던 제가 선택한 종교는 천주교였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그곳 천주교 모임에서 만났던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담당 신부님께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해 주셔서 이 일을 시작했고, 그 이끄심으로 지금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봉사했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편견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로 인해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줘야 했고,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시선이 너무 힘들고 아픔이 너무 커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곳에서 태어나 20대 후반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 다름을 틀리게 보는 곱지 않은 시선, 처음 경험하는 왕따,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등등을 극복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들을 비롯하여, 혼자 해내야 하는 일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듯이 주님께서는 은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 살아갈 용기를 주셨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이사 49,5)라는 말씀처럼 힘없고 나약하고 믿음도 부족한 저에게 하느님은 세상에 유일하고도 든든한 버팀목이셨으며 성모님은 따뜻한 어머니셨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3-5)라고 하셨듯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믿기에,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청하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원혁 세례자요한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교황 장례 예식의 전례 색깔은 왜 붉은색인가요?

지난 4월 21일,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은 슬픔 속에 하느님 곁으로 가시는 교황님을 현장에서 그리고 생중계되는 화면을 통해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제는 붉은색 제의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전례를 지켜 보며 '어? 장례 미사 때는 보통 흰색 제의를 입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분, 안 계셨나요? 오늘은, 교황님 장례 예식에서 왜 붉은색으로 전례 색깔을 정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의 장례 예식 지침 22항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장례 예식에 알맞은 전례 색깔을 결정한다. 이 색깔은 민족의 특성에 적합하고, 슬퍼하는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파스카 신비로 밝혀진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32항에서는 한국 교구들에서는 이 장례 색깔에 대해 흰색이나 보라색이나 검은색의 영대를 매고 같은 색깔의 제의를 입는다고 나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위의 22항에 나온 것처럼 파스카 신비로 밝혀진 그리스도인의 희망, 곧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흰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황님의 장례 예식에서는 붉은색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교황님의 복장을 떠올려 볼까요? 교황님의 고유 색상으로는 흰색과 붉은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추기경 재임 중 교황으로 선출되어도 추기경때 입던 붉은 옷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흰옷을 입는 전통은 1566년 비오 5세 교황님이 흰옷을 입는 도미니코 회원들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추기경은 붉은색 수단을 입게 되는데, 여기서 붉은색은 교회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의

붉은 제의를 입고 쓰시던 묵주를 손에 쥔 채 입관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사진 제공: 바티칸뉴스)

정신과 교회를 향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추기경님들의 장례 예식에 붉은색을 사용 하고, 마찬가지로 교황님도 고유 색상 중 하나인 붉은색으로 장례 예식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교황님의 장례 예식에서는 보라색 및 검은색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은 1978년 성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교황 장례 예식〉(De funere Summi Pontificis)을 반포하시면서 교황님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2024년 교황님의 장례 예식 수정판을 승인하시며 붉은색으로 이어져 온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교황의) 시신은, 미사 거행 때처럼 붉은색의 전례 복장을 입고, 주교관과 팔리움을 착용한 채, 교황의 목자 지팡이 없이 나무와 아연으로 된 관에 안치된다. 관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는 부활초가 놓인다."(〈로마 교황의 장례 예식〉, 29항)

붉은색, 곧 그리스도의 피와 순교를 상징하는 빨간색은 피를 흘리기까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님의 종, 종들의 종으로서 그러한 순교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교황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태, 새로운 빈곤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이전에 없던 기계가 발명되고 인간의 산업은 진보했습니다. 도시화가 이뤄지며 삶을 풍요롭게 해줄 물품이 빠른 속도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적이었습니다. 값비싼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산량의 급증은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고 이는 오히려 인간 존엄성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산업의 팽창이 노동자의 양적 필요의 확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농촌 출신의 사람들, 특히 아동들은 유용해 보였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12~16시간, 주 6일의 노동. 그럼에도 이들의 임금은 성인의 1/4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동 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과 결부되어 위험한 사상으로 오해받았고, 기득권 세력과 국가 권력은 억압이나 방임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국가와 자본가 계층에게 위협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에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요구는 '급진적인 선동'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인간다운 삶, 정당한 임금, 가족 부양의 권리 등 당연한 윤리적 요구가 그렇게 묵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1년,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회칙 〈새로운 사태〉를 발표하십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공산주의적 사상이 아닌 '인류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가르침이 선포되었고, 이념적 색깔로 왜곡되었던 노동 운동의 도덕적 정당성이 새롭게 퍼져 나갔습니다. 교회의 사회 교리는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12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황님은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태, 새로운 빈곤을 조명할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사태를 돌아봅시다. 이전에 없던 기술이 발명되고 인간의 산업은 진보했습니다. 세계화가 이뤄지며 삶을 풍요롭게 해줄 기기와 정보가 빠른 속도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적입니다. 값비싼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인간 존엄성의 파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의 요구는 묵살됩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지고 교회의 부르짖음에 세상은 더욱 냉소적입니다. 우리가 새 교황님의 행보, 교회의 사회 교리와 윤리 가르침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는 외칩니다. "기술을 사랑하되, 인간을 먼저 사랑하라. 세상의 진보를 환영하되, 그것을 정의 위에 세우라."

여행을 떠나요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살레시오청소년센터)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 위해 "다음 주에 어디로 놀러가면 좋을까?"하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전쟁기념관에 가면 좋겠어요."라며 신나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 "아빠와 갔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요."라고 말하며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듯, 그 아이 아빠의 얼굴에도 미소가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느낀 행복은 그 아이만의 것이 아닌 가족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행복함의 체험은 우리 가슴속에 추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기억속에 남아 먼 훗날 아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는지 떠올리며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되새김은 성가정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기반이 됩니다.

물론, 여행을 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계획을 변경하는 융통성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행에서 '새로움'이라는 가치를 얻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행을 떠나세요. 여행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행동을 '새로움'으로 변화시켜 줄 기회가 될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행이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행은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과정을 통해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행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아니 반나절만이라도 아이들 손을 잡고 공원으로, 산으로, 강으로 나들이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소리가 우리 가정에 행복감을 가져다 줄 겁니다. 때로는 삶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새로움'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고요. 이런 작은 삶의 실천이 우리 가정에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 서로를 사랑하시어 이루신 친교가 우리 가정 안에 흘러넘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아가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와 행복감이 번져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의 친교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 가족을 일치로 이끄시는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고개를 들다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대신학교장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8단계 발달 모델'의 세 번째(3~6세)는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큰아이로 행동하려고 하며 분명한 목적 아래 자신의 행동을 시작하고 마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목표와 활동은 때로 부모나 다른 가족의 목표/활동과 부딪히기 마련이죠. 이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면 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활동하는 '주도성'을 기르게 되지만, 아이의 활동을 지나치게 처벌하거나 억제하면 아이는 '죄책감'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거듭되면 아이의 내면에는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자기혐오'의 태도가 형성됩니다. 행동이 '나쁜' 것과 나라는 사람이 '나쁜' 것을 아직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혐오로 이어지는 죄의식은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제된 자기혐오가 자신을 향하면 만성적인 우울감으로 발전하기 쉽고, 다른 사람을 향하면 공격적인 성향이나 완벽주의 또는 강박적인 성향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달 단계에서 형성된 죄의식은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늘 감시하고 벌하는 엄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나를 좋아하고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분이신가요?

원죄의 결과로 물려받은 근원적인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더하는 길보다 죽음을 향하는 길로 기울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들, 곧 여러 계명이나 고해성사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그런데 작은 일에도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는 분이라면 이런 안전장치를 하느님께서 나를 속박하시는 도구로 느끼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하느님을 엄하신 분으로 알아듣는 모습입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두 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이해하는 듯합니다. 본인 스스로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29절) 살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지 않을까 싶어 늘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비해 작은아들은, 비록 행실은 방탕했을지라도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탕진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겠지요.

건강한 죄의식은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지만, 그릇된 죄의식은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서울주보 제2463호, 2023년 8월 27일 자 참조) 죄의식을 많이 느끼는 나라면,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보세요.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내가 어떠하기를 바라실지 여쭤보세요.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움츠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개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이사 41,13)

큐알(QR)을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비추시면,
2023년 8월 27일 자 영성심리 칼럼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6월 15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25일) 2차 헌금 및 9일 기도

1) 단식 모금 운동(2차 헌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6월 20일(금) 하루 동안 한 끼를 단식하고, 이 단식으로 모금된 성금을 6월 22일 주일미사에 2차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2) 9일 기도 봉헌(6월 17일~25일)

미사 전이나 후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첫째 날	6월 17일	남남갈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둘째 날	6월 18일	상호 존중을 위하여
셋째 날	6월 19일	평화의 일꾼을 위하여
넷째 날	6월 20일	이산가족과 북향민(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다섯째 날	6월 21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여섯째 날	6월 22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일곱째 날	6월 23일	군비경쟁 중단을 위하여
여덟째 날	6월 24일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아홉째 날	6월 25일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8년 6월 21일 서우석 요한 신부(44세)
- 2010년 6월 17일 박대웅 세례자요한 신부(57세)
- 2021년 6월 19일 신광호 베드로 신부(44세)

교구청 알림

'슬픔 속 희망찾기' 6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때, 곳: 6월 21일(토) 10시(자비의 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정성훈 신부 서예전: 1전시실
정지현 도예전: 2전시실
양상윤 신부 사진전: 3전시실
전시일정: 6월 20일(금)~29일(주일)

2025년 어머니·아버지학교 온라인(Zoom) 교육

주제: 자녀에게 신앙 이어주기 / **주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때: 6월 27일~7월 18일 매주(금) 19시30분~21시30분(4주)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이세라 연구원
접수: 6월 22일까지 / **회비:** 4만원
문의: 02)744-0840 / 사전모임(6월 25일(수) 20시~20시45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2025년 생명수호 일러스트 공모전

주제: 가톨릭 생명윤리에 맞는 생명사랑, 생명존중, 생명수호를 주제로 그린 순수 창작 일러스트
대상: 생명수호에 관심있는 누구나(가톨릭신자 아니어도 가능) / **접수:** 7월 16일~31일
시상내역: 대상 1편(200만원), 최우수상 1편(150만원), 우수상 1편(100만원), 장려상 3편(각 50만원)
자세한 내용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 참조

사목국 노인사목팀 '노인 예비자 방문교리'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건강상 본당 예비신자 교리반에 출석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교리신학원 출신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노인 예비자 방문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리기준 및 기간: 본당에서 예비자 방문교리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예비자 소속 본당 신부의 승인 하에 교리교육 실시
교리 기간은 주 1회, 최대 3개월 과정으로 진행
문의(신청): 02)727-2385 / 신청 시, 교리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시복시성 기원미사(211회)

이 달의 하느님의 종 '이 요한'
때, 곳: 6월 17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마약류 및 약물중독자, 가족 중독회복치유상담 안내

마약 및 약물중독대상자, 가족의 중독회복상담과 중독회복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신청 · 주최): 02)364-1811(alcohol1952@naver.com) 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1) 2025 세계평화의 바람 DMZ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20세~39세 청년(내 · 외국인)
때, 곳: 7월 10일(목)~13일(주일) / **문의:** 02)753-0815
회비: 10만원 / **문자:** 010-4682-2412(신청서폼 발송)
2) 2025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때, 곳: 6월 22일(주일) 12시, 명동대성당(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 가능) / **주례:**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3) 민족화해위원회 설립 30주년 기념학술회의 / 문의: 02)3789-0815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 **주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의 여정과 사명
때, 곳: 6월 22일(주일) 15시~18시30분, 명동대성당 영성센터(구 계성여고) B201호
4) 1468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6월 1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북녘본당': 서울대교구(북녘지역) 매화동 본당 / **문의:** 02)727-2420
5)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때, 곳: 6월 20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한국 카리타스 설립 50주년 기념행사

한국 카리타스 설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문의:** 02)460-7638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caritas50.cbck.or.kr) 참조
주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기념행사 일정(명동대성당과 꼬스트홀 등에서 개최)	
6월 18일(수)	개막 미사(14시), 세미나 1.2(16시), 음악회(19시)
6월 19일(목)	도보 성지 순례(9시30분), 감사미사(15시)
6월 20일(금)	폐막미사(11시)

2025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때: 6월 26일(목)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혜화동)
강사: 이한석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주제: 역사와 성서-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해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접수: 5월 20일(화)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선착순 400명) /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환경사목위원회

1) 제75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6월 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2) 제56회 가톨릭 에코포럼
때, 곳: 6월 25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강사:** 조동원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대상: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 **주제:** '과학과 종교'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eco.catholic.or.kr) 및 전화(02-727-2278, 2283) 접수

명동대성당 2026년 상반기 혼인 예약 추첨

1) 2026년 1월~6월 혼인예약 추첨
때, 곳: 7월 18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낮 12시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 배부.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수령 가능 /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 불가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대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성령미사, 강의, 안수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창진 신부

예수회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4박5일 침묵 피정
때: 7월 25일(금)~29일(화), 8월 6일(수)~10일(주일)
곳: 예수회센터 / 문의(접수): 02)3276-7799

예수 전교회 치유 대피정
때: 6월 21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특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강사: 서경숙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7월 19일(토), 행주성당 외 3곳(의정부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 사전 접수 필수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김현우 신부(인천 해양 사목 담당)
때, 곳: 6월 18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동작동성당 3층 대성전

6월 17일(화)	박효철 신부	7월 15일(화)	박현철 신부

피아골 피정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7월 18일~19일, 9월 19일~20일
홍성남 신부	북해도 8월 25일~28일, 아키타 9월 8일~12일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 010-3340-0201

효소 단식	6월 26일~29일, 7월 17일~20일
성경 완독	7월 25일~8월 2일, 8월 15일~23일
카타리나의 집(개인·자체취사)	문의: 010-9715-1203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7월 4일 10시~15시30분
토요성모신심 기도와 미사	6월 21일 10시~12시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6월 27일~29일(2박3일)
대침묵 피정	7월 24일~27일(3박4일)
수요 개방 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6월 28일(토)~29일(주일), 8월 30일(토)~31일(주일)
2박3일	6월 23일(월)~25일(수)
3박4일	7월 3일(목)~6일(주일), 7월 24일(목)~27일(주일)
8박9일	7월 10일(목)~18일(금), 8월 7일(목)~15일(금)
40일	10월 14일(화)~11월 22일(토)

베이비붐 세대 피정 'lec n rec'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베이비붐세대 피정 / 최영민(예수회)

9박10일 멕시코 성지순례 모집
세계 3대 성모발현지 과달루페 포함
그리스도 레지오 신부와 동행
때: 11월 27일~12월 5일 / 문의: 02)732-4578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지도: 허성준 신부(외) / 회비: 38만원(1인1실)
때: 7월 31일(목)~8월 3일(주일)
곳: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왜관 수도원 내)
문의: 010-8599-3127 한릿다(왜관 성 베네딕도회)

성체 성혈 대축일 대 피정
주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강사: 염수정 추기경, 임승철 신부
미사집전: 추기경 외 사제단 / 회비: 3천원
때, 곳: 6월 23일(월) 13시~16시, 명동대성당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교육
청년 피정 2박3일 / 대상: 40세 미만 청년 남녀 누구나
주제: 나의 희망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때: 7월 18일(금) 20시~20일(주일) 13시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운정)
회비: 8만원 / 문의(접수): 010-9099-2337

2025년 희년의 순례, 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내용: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올레길에서 희년의 은총이 가득한 순례의 길을 동행합니다
참조: 본당 단체별 신청 시 특화된 프로그램 진행
곳: 제주 면형의 집 / 문의: 064)732-4702 면형의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추자도포함 제주 성지순례** 7월 1일~4일·9월 7일~10일·9월 18일~21일·10월 25일~28일, **자연순례** 7월 12일~14일·9월 1일~3일·9월 13일~15일, **우도 섬 포함 여름 피정** 7월 18일~20일·7월22일~24일(차귀도)·7월 26일~29일·8월 1일~3일·8월 7일~9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사이버성경학교 '희년' 이벤트
접수: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365일 신청
전과목 50% 할인, 다양한 무료 컨텐츠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자아의 통합과 영성' 여름집중 동영상 강의
때: 7월 4일~8월 15일 매주(금)
녹화강의 동영상 발송 / www.jjscen.or.kr
문의: 02)726-0700 전진상영성센터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띠나 음악원(주최, 신촌)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7월 22일~8월 5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토요 언어·여행영어·한국어(한국여성생활연구원)
강사: 배명숙(언어학박사) / 회비: 5회 10만원(선착순 접수)
곳: 가톨릭회관 522호 / 계좌: 우리 1002-566-275262
문의: 02)727-2471, 010-3897-3740

서강대학교 '거룩한 만남의 순간들'
주제: 초대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문의: 02)705-4711
때: 6월 16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냐시오 소강당 / 회비 없음

제22회 가톨릭 대안 좋은학교 연수
대상: '좋은 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교사
때, 곳: 7월 19일(토) 9시~17시, 양업고등학교
접수: 7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회비: 5만원(식사비 포함) / 문의: 043)260-507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영성학교
강사: 전삼용 신부, 송봉모 신부, 박효철 신부, 김현우 신부, 김재덕 신부, 김성대 신부, 박현민 신부, 이창진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때, 곳: 6월 17일·24일 (화) 12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졸업미사: 구요비 총대리 주교
2025년 하반기 영성학교: 7월·9월~10월, 시간·장소 동일
회비: 월 3만원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계좌: 신협 131-022-652844 가정선교회 / 당일접수 가능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손흥민 토트넘·서유럽투어)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center.jesuit.kr)

(월)	근·현대 문화유산 교회사	이진현 신부
(월)	월요무료 피정 '의식 성찰-그리스도의 시선'	이근상 신부
(화)	구약성경 아카데미-사무엘기, 열왕기	주원준 박사
(수)	예수의 윤리 이야기-덕, 평화, 공동체	박상훈 신부
(목)	인간과 창조-바오로의 관점	김민철 신부

2025년 후기 2차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문화영성학과(석사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6월 16일(월)~7월 6일(주일) / **면접:** 7월 18일(금)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울 반포)
문의: 02)3147-8787(gcs.catholic.ac.kr)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6월 19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6월 24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6월 19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주례: 함페트릭 신부(골롬반회) / **문의:** 02)953-0613
때, 곳: 6월 21일(토) 16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누구나 참석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해외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6월 30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푸스데이 설립자 성 호세마리아 축일 미사

때, 곳: 6월 21일 (토) 오전 9시, 도림동성당
'일상생활의 성화'라는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신자들을 환영합니다 / **문의:** 이메일(info.kr@opusdei.org), 전화(02-727-2480)

안내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까리따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개장 알림

때: 주말개장 6월 6일부터 매주(토·주일), **상시개장** 7월 18일~8월 17일 / 그늘막, 주차 무료
개인 및 단체 하루이용 가능 / **문의:** 031)840-001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요나성당
방법: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yonaresort.modoo.at) 참조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인천 동구 박문로 1) 방문·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따숨 젊은이 기도모임	매월 첫째·셋째주(월) 19시30분~21시30분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매체심리 상담전문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개별 상담	우울, 중독증상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아동·청소년·성인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교육 과정	**평일반**-6월 23일~7월 21일 (월) 10시~15시(6회)·**평일반**-6월 27일~7월 25일 (금) 10시~15시(6회)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6월 24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직원모집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주방 근무자 모집

문의: 010-3401-5541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야간당직·경비(계약직)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치위생사, 행정(인사·총무) 각 ○명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하여 지원서 접수 / **문의:** 02)2634-1760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계근무자 모집

분야: 여름신앙캠프 보조지도, 야외수영장 근무(가드·간호사) / **문의:** 031)840-0018
6월 28일(금)까지 이메일(service@hanmaum84.com) 접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압구정1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 모집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우편(우 06023,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67길 27) 및 이메일(spsyr@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541-9241

창5동성당 미화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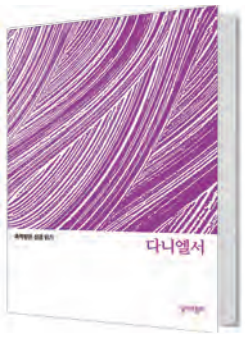
분야: 미화원(계약직) 1명 / **문의:** 02)990-5684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성실한 분 / 6월 15일(주일)까지 방문 및 이메일(chang5dong8@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강동구) 세탁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세탁근무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 문의
6월 18일(수)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예수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수도원(서울)	010-7485-1964
예수회	6월 21일(토) 15시	관구본부(마포구)	010-2876-1540(vocation@jesuit.kr)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6월 21일(토)	수도원(개화동)	010-3400-0102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다니엘서

가톨릭성서모임 엮음
성서와함께 | 40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축복받은 성경 읽기》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간

영적 실천의 심리 구조

미하일 센마르토니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440쪽 | 2만4천원
문의: 02)740-9718

가톨릭 신앙과 영성은 인간이 은총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응답하며, 하느님께 마음을 온전히 개방하고 의탁하는 역동적이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내적 체험이다. 이 책은 영성 심리학적 방법론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 역동성을 총 5부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영적 성숙과 인격의 성장이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신간

이태석 신부 서간집

이태석 지음
도서출판 돈보스코미디어 | 352쪽
2만2천원 | 문의: 02)828-3535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 톤즈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구호, 의료, 교육 등에 힘쓰며 복음을 선포했다. 그의 헌신적인 삶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의 우리에게 타인의 고통과 위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배려와 사랑의 감각을 일깨운다. 총 81통의 편지, 미공개 사진을 포함한 110여 장의 사진도 포함되어 이태석 신부를 그리워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신간

카를로 아쿠티스

닉 메일렌더 글 · 알베르트 카레레스 그림
바오로딸 | 200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카를로 아쿠티스는 2006년, 열다섯 살 나이에 하느님 품에 안긴 청소년으로, 성체성사의 신비를 깨달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다. 전 세계의 성체 기적과 성모님 발현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많은 이에게 신앙을 알렸으며 교회 역사상 밀레니얼 세대로는 최초로 복자품에 오른 그는 올해 성인품에 오를 예정이다.

연주회

202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수음악회

때: 6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곳: 중림동 최양업홀 / 전석 무료
문의: 02)393-2215

교구 성음악위원회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수 음악회'가 6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중림동 최양업홀에서 열린다. 오르간, 첼로, 바이올린, 성악, 리코더, 오보에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이 참여해 깊이 있는 연주를 선보인다. 솔로 연주부터 오르간 3중주, 부부 성악 듀오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주회

무지카사크라서울합창단 팔레스트리나 탄생 500주년 연주회

때: 6월 19일(목) 20시
곳: 반포4동성당 대성전
전석 무료 / 문의: 010-9464-0680

1984년 창단 이래 다성음악과 가톨릭 교회음악을 꾸준히 연주해 온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이 팔레스트리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는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 신기호 신부의 지휘로, 6월 19일(목) 오후 8시 반포4동성당에서 개최된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 9일 기도 지향

6/17 : 남남갈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6/18 : 상호 존중을 위하여
6/19 : 평화의 일꾼을 위하여
6/20 :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6/21 :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6/22 :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6/23 : 군비경쟁 중단을 위하여
6/24 :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6/25 : 평화를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

◉ 2026년도 상반기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첨

·혼인예약 : 2026년 1월 ~ 6월
·추첨일시/장소 : 2025/7/18(금) 오후 2시 / 대성당
☞ 낮 12시부터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배부합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수령 가능)
☞ 이중 추첨, 양도 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 불가!
·혼인장소 · 요일별 혼인 가능시간

혼인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	17시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예약금 납부는 **계좌이체 ·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본당 홈페이지→혼인성사 안내→'**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구(본당) 행사로 인해 추첨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한인성당 교적자 제외)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성사를 받기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시고, 이를 혼인 추첨 당일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첨 이후 혼인예약 현황은 2025/7/25(금)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명동대성당 생명교리 강좌

·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성사를 받은 20세 이상 교우
·강좌 : 6월 29일 ~ 7월 27일 (매 주일) 5주간
14:00~16:00 / 90분 수업, 30분 질의응답
·장소 :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2층 대강당
·교재 : 추후 공지 (☞ 각자 구입하여 지참)
·접수 : ① 성당마당 부스 - 6월 15일(주일) 10:00~17:00
② 본당 사무실 - 6월 17일(화)~22일(주일)
※신청 시 '교적증명서 1부' 제출 必
※본 생명교리 강좌를 5주 모두 빠짐없이 수강 시 견진교리로 인정, 2025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견진성사(10월 26일)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 시 견진교리로 인정 안 됩니다! (선착순 100명)

◉ 명동대성당 3545+ 청년성서모임 말씀의 봉사자 모집

· 대상 : 창세기 연수 수료 후 탈출기 수료 혹은 탈출기 그룹공부 중인 (82~93년생) 천주교 청년신자
※교적증명서 제출필수/미혼·기혼 무관
· 지원방법 : 네이버 카페 /ourbible3545 가입 ☞ 공지참조
· 마감 : 6/15(일)까지
· 문의 : 온라인 카페 또는 logos3545@naver.com

◉ 명동대성당 청년성가대 엘리 단원 모집

·모집대상 : 20세~33세(93년생~06년생) 천주교 신자로서 매주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분
·모집기간 : 6월 30일(월)까지
·제출서류 : 입단신청서 1부, 교적증명서 ☞ 오디션 당일 제출
·오디션 및 면담 : 7월 13일 예정(입단신청자 개별 공지예정)
☞ 성가 자유곡 1곡, 악보 2부 지참
·문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명동성당 청년성가대 엘리 단원모집

◉ 명동대성당 '성서백주간' 추가 모집

본 모임은 백 주간에 걸쳐 구약, 신약 전체를 통독함으로써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말씀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요일(시간) : 수요일 (오후 2시~오후 4시)
목요일 (오후 3시~오후 5시)
일요일 (오후 4시~오후 6시)
·신청접수 : (이름, 세례명, 본당, 신청반 요일-시간)
문자 메시지로 ☎ 010-8654-4501
·모집기간 : 6/30(월)까지

◉ 명동대성당 새벽미사봉사단 단원 모집

·모집분야 : 평일(월~토) 오전 7시 미사 독서봉사자
·모집기한 : 6/30(월)까지
·지원자격 : 세례 (견진성사) 3년경과 신자(55세 이하)
·문 의 : paulbibi@naver.com

◉ 명동대성당 미사안내봉사단 단원 모집

·봉사시간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주일 오후 6시 미사
·자격조건 : 가톨릭에서 세례 받으신 신자
·제출서류 : 입단 신청서, 교적증명서
·문 의 : ☎ 010-5894-9943 (문자)
이메일(samlomsoo@gmail.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 아미쿠스 주일학교 남자교사 모집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남자교사가 부족하여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만 40세 가톨릭 신자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문 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작은 연주회

「주님과 음악 사이에」

·일 시 : 매월 첫째 · 셋째 주일 / 오후 3시 30분
·장 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단원모집 : 초2~5학년 가톨릭 신자 남아 / 010-7242-6027
(QR코드 참조)☞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 드 레 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 토 니 오)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 오 로) 신부
전례·성음악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애인신앙교육 이승규(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81	봉헌 : 235, 340, 216	성체 : 164, 156, 151	파견 : 82

《 세례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2024년 12월에 입교하신 예비신자분들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시는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드립시다.

《 레오 14세 교황 선출 감사 미사 》

제 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님을 위한 감사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 시 : 6월 16일(월) 오후 2시 / 대성전
· 집 전 : 정순택 대주교님 주례
(한국천주교회 주교단과 사제단 공동 집전)

《 사제 성화의 날 》

오는 6월 27일(금)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사제 성화(聖化)의 날'입니다. 사제 성화를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사제 성화의 날 행사 관계로
당일 오전 10시 미사와 상설 고해성사는 없으며, 09:00~17:00까지 '대성전' 출입이 불가합니다.

《 정순택 대주교님께 드리는 영적 선물 》

오는 6월 29일(주일)은 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영명축일입니다. 대주교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및 영성체, 묵주기도, 성체조배, 희생
* 주교를 위한 기도

◉ 2025년 명동보름장 개장

·기간 : 4월~11월 (첫째 · 셋째 주일) 10:00~16:00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가톨릭회관 앞마당 일대

※명동보름장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매년 6월 25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본당은 직전 주일 교중미사를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로 봉헌하며 2차 헌금을 실시하오니 북한 형제들을 위한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6월 22일(주일) 낮 12시 교중미사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로 봉헌
2. 단식 모금 운동 : 2차 헌금
6월 20일(금) 한 번의 단식을 통해 북한 형제들과 나눈다는 의미로 현금으로 환산하여 6월 22일(주일) 미사때 2차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참석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1995년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명동대성당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기도 바랍니다.
4. 9일 기도 [6월 17일(화)~6월 25일(수)]
미사 전이나 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봉헌해 주십시오. (가톨릭 기도서 109쪽 / 매일미사 186쪽)
(※9일 기도 지향은 주보 안쪽 면 참조)

◉ 2025년도 상반기 견진자 감사예물

지난 주일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11,432,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2026년도 상반기(1~6월)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첨

·추첨일시/장소 : 2025/7/18(금) 오후 2시 / 대성전
☞ 자세한 내용은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하십시오 !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6/2-6/8).....20,084,200
- 성령 강림 대축일 헌금.....45,966,540
- 성모 성월 꽃 봉헌금 (4/26~5/31) 8,582,000
- 감사헌금 (6/2-6/8).....3,490,000

강 디모테오 / 김 글라라 / 김 마르첼로 / 김 안나 / 박 안젤라 임 사무엘 / 정 루치아 / 정 프란치스코 / 표 요안나 / 익명(2)

미사(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청년미사)		
평일미사	월	07:00, 18:00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 · 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Sun.	08:30 - 08:50
Sat.	16:00 - 17:00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 1% 행복발견 】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행복 발견하기'

봉사나 작은 선행으로 이웃과 세상에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합니다.